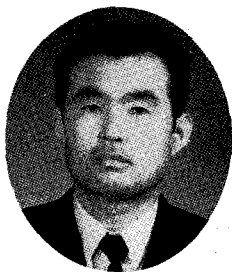


일한 만큼 대가를 돌려주는 정직한 소들에 대한 믿음



조 석 형

충남 당진군 합덕읍 장정리 716

「낙농 전업 목장을 운영하면서」란 제목에 대한 기고라
서 여타한 목장에 비하여 시설과 사료포기계 등 미비된
것이 많은 내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이 우리 낙농
가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며 많이 망설였지만, 정해진
틀이 아닌 여러 형태의 형편에서 전업 낙농을 꿈꾸는 농
가들 중에 적은 토지에서 저렴한 축사 시공과 고정자산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
이 되었으면 한다.

오래되어 빛 바랜 사진처럼 떠
오르는 15년전, 송아지 2마리를
구입하여 목장을 시작한 이래 별
로 크게 이룬 것은 없지만 뒤돌아
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길
을 한번 돌아본다.

많은 시행착오로 우군 거의 다
가 유방염에 감염되었을 때 또, 힘
겹게 사온 8마리의 초임우가 만삭
이 되어 우사 옆 과수원에서 새물
이용으로 쓰는 대포소리와 같은
공포탄에 놀라 모두 유산했을 때,
몇 번인가 목장을 그만두어야 할
위기도 있었지만 낙농업 말고는
다른 일을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내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끈
기 있게 이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일한 만큼 대가를 돌려주는
정직한 소들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럼 먼저, 우리목장의 현황을
살펴보자. 93년 이곳으로 목장을

이전하면서 마련한 2000평의 대
지위에 축사로는 이때에 이지역에
선 처음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
톱밥 우사 300평, 착유실을 포함
한 건유 및 초임 우사 130평, 육
성 송아지 우사 60평, 우분장 70
평, 벧집 저장용 하우스 50평 등
인데, 모두 자가 설치한 것이어서
비용은 많이 들지 아니하였다.

1,700만원주고 설치한 2열4두
헤링본 착유기와 1100만원에 구
입한 3톤 냉각기, 95년 국산으로
처음 개발된 사료 자동 급이기 4
기를 1000만원이란 저렴한 값으
로 설치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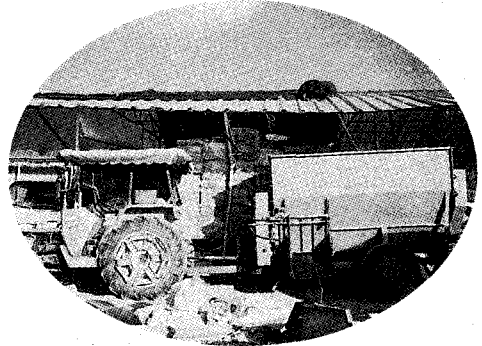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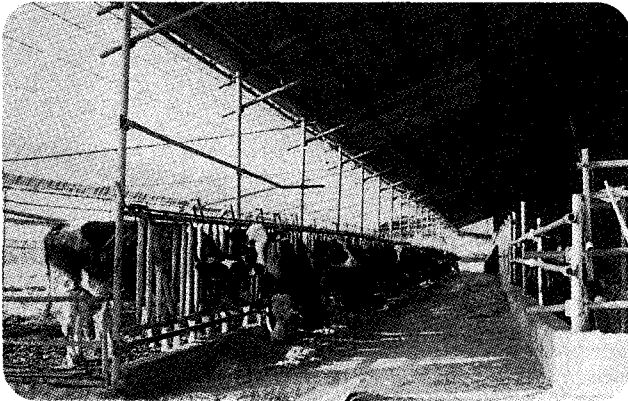
가능한 대로 기계는 사지 않는
편인데 그래서 아직 혼한 분처리
용 로더 한 대없고, 분처리는 퇴비
수거 업자에게 톱밥을 서로 반부
담하는 형식으로 맡겨 버렸다.

TMR 배합용 트럭터와 배합기
도 중고로 두가지를 600만원 들

여 구입한 것이다. 될 수 있는 데
로 고정자산에 투자를 적게하며
우유 생산에 많이 투자하는 방식
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목장
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착유 설비만큼은 처음부
터 제대로 된 것을 권하고 싶다.
그렇다고 자동화된 고가의 착유기
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진
공압, 규격에 맞는 라인 크기와 설
치 등이다.

우군으로는 착유우 57두, 건유
우 6두, 초임 10두, 육성 송아지
27두 이고, 1일유량 1,750kg, 유
지방 3.8~3.9, 세균 체세포는 거
의 1등급을 받는다. 마리수에 비
해서 우사가 적은 편이라 운동장
이 쉽게 더러워지는 불편함이 있
지만 톱밥을 자주 갈아줌으로 해
결할 수 있다면 그쪽이 땅을 구입
하거나 우사를 신축하는 것 보다
당장은 유리하기 때문에 참을 수



밖에 없다.

착유우 1두당 5평인데, 적어도 마리당 7~8평 정도는 되었으면 한다. 가능하다면 적은 우사에서 많은 마리수를 사육하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겨울에 좋은 정액을 선택하여 받아두었던 암송아지 몇 마리를 밀사로 인해 호흡기질환으로 폐사했을 때, 얼마나 가슴아팠는지 모른다.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으로 넓은 우사를 지어 운영하는 것이 어느모로 보나 유리하다. 사료 급여에 대해 말하여 보면, 나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에는 전문가의 도움받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기수정을 한지가 오래되었지만 난소감정, 임신감정은 잘하는 수의사에게 의뢰한다.

그것이 비용은 들지만 불임우를 조기발견하여 치료하며 미발정우의 난소감정으로 공태일수의 단축 등에 도움이 되므로 오히려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료배합비도 조사료 공급업체인 W업체에서 농가지도를 담당하는 TMR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

합사료를 3kg정도 섞은 섬유질 TMR을 하루2회 배합해 자유급여 하고, 자동급이기로 배합사료를 8kg정도 급여하는데, 유량에 따라 차등 급여하고 있다.

자 그럼, 착유실로 가보자. 전에 우리는 10여년 간을 유방염과 씨름했었다. 워낙 관리를 철저히 해서 P유업체에서도 좋은 등급을 계속 받아왔지만, 버리는 우유와 치료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들은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할만 했다. 그래서 유업체에 착유기 테스트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를 초빙, 착유상태 점검을 받아 보았다.

결과로 밀크라인을 50mm에서 75mm로 진공라인도 50mm에서 75mm로 키우고 진공압은 46kpa에서 42kpa로 점차 낮추었으며, 착유 진행상 유두 자극 후부터 라이너 부착시까지 1열 4두 전체가 4분정도 걸린다는 지적에 그 시간을 줄이려 부부가 함께 한쪽을 먼저 닦고 라이너를 부착시키는 등 시간단축을 위해 노력하여 2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고, 전착유 때마다 유두 꼭지밀에 대고 3~4회 전착유를 실시 하였는데, 세균을 줄이고

유방염을 조기 발견하여 체세포를 줄였으며, 또한 조기 치료함으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난 뒤부터 1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은 전에 걸렸던 경산우에서 가끔씩 재발하는 개체가 있을 뿐 초임우에서는 거의 유방염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우군의 개량과 시간절약(수정사를 기다리는 시간)을 위해 91년부터 자가수정을 하고 있는데, 초임우를 택해 기대치가 높은 수입정액을 구입해 수정시킴으로 수태율을 높이고, 경비 절감과 개량효과도 높이고 있다.

TMR을 하다보면 점심은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군을 관찰하는 시간이 적어지게 마련이다. 궁여지책으로 착유때는 물론이거니와 외출할 때 나가기 전에 우사에 들려, 잠시 관찰하며 TMR사료를 밀어주고, 발정개체가 있는지 살핀다. 또 밖에서 집에 돌아와 차를 주차한 뒤,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로 바로 우사에 가서 관찰한다.

또 저녁 자기전, 11시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실내복 차림에 두툼한 옷을 걸치고 우사에 나가서

TMR사료를 밀어주고 한참동안 관찰한다. 하루 중에 발정우를 이때에 제일 많이 발견하게 된다.

밤새 많이 누워 있다 일어나서 자궁이 깨끗하지 않은것들은 그때에 표가 나게 마련이다. 우리 목장에서는 체세포 감소제등 첨가제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것들은 곧 더 많은 돈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했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같은 유량 수확기에는 면실 알팔파 베일 같은 사료는 값은 좀 비싸더라도 최상급을 항상 확보해서 급여하려고 힘쓰며, 배합된 TMR사료를 어떻게 하면 많이 먹게 할까를 연구한다.

적당한 수분·생균제 투여·잔여 TMR은 제거하여 육성우에 주며, 하루 2회 배합하여 항상 신선

한 것을 먹게 하는 등의 노력이다. 산전유방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유는 하루 굶긴 후에 연고를 주입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짜내고 다른 제제의 건유연고를 주입한다.

낙농강습회에서 강사가 한 말이 있다. 낙농가들은 소고집이라 잘 하라고 가르쳐 주어도 실행하지 않는다고... 나 역시 알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있고, 개선해야될 여지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착유 우군 분리 사육이나 젖소 개량을 위해 유우 검정같은 일은 어렵지만, 한가지 한가지 실천해야 될 일인데 마음만 있을뿐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 한가지 일, 1년에 한가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비록 다른 일에 바빠서 한가지 일도 못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것들 또한 나의 마음에 부담으로 작용해 게으르지 않게 하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게 한다.

올해는 중점적으로 송아지 육성을 잘해 보려고 남은 22마리의 암 송아지 육성에 최선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양질의 건초를 구입해 급여하며 적은 사료로 사육하여 장래의 우리목장에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려 한다.

끝으로, 나의 사업에 동반자였으며 일꾼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나의 아내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은 은총이 모든 낙농가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함께하시길 기원한다. ㊦

<연락처 : 0457-362-2246>

㊦ 알리는 말씀 ㊦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육우농가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월간 낙농육우」 또한 회원 여러분의 월간지로서 항상 회원여러분과 동고동락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다음의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투고를 환영합니다 ♥

「월간낙농육우」에서는 언제나 회원여러분의 생생한 삶의 현장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마시고 펜을 드십시오. 우리는 소를 키우는 농민이지 소설가나 시인이 아닙니다.

아무런 격식도 필요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체험담, 미담, 제언, 기술정보, 수필, 시, 콩트 등을 제한없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 원고에 대해서는 성심껏 게재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정의 원고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내실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축산회관4층)

한국낙농육우협회 홍보실